

생태축제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연구

안산갈대습지 가을문화축제 소리전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gram of Culture-Art Program for Eco Festival

Focused on Fall Culture Festival Sosijeon at Ansan Reef Wetland

주 저 자 : 신진옥 (Shin, Jin OK)

(재)안산환경재단 차장,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디자인전공 박사과정

heaven0200@naver.com

공 동 저 자 : 조충현 (Cho, Choong Hyun)

(주)이앤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Abstract

Eco festival is social interaction for building eco society through entertainment activities and preservation of eco environment. Eco festival applying regional eco asset is increase as regional festival is getting more, but the program of eco festival is getting more uniformly. This study aims to suggest direction and plan of culture-art for eco festival using characteristics of space. Eco-friendly culture events at eco part similar to Ansan Reef Wetland are analyzed as case studies. Since eco park is not park categorization of part by law, many local government entitled 'eco park' indiscreetly, thus culture events at eco parks have character as local festival. Major contents are planed based on characteristics of main visitors group and eco-environment, and theme of event by supervised organization. Fall festival at Ansan Reef Wetland has basic direction for event: space usage to minimize harm eco-environment, focus on hearing as theme of festival, collaboration with culture-art organization, and participation of local artists. To preserve core value 'respect to eco-environment and enjoyment of art and culture' for eco-environment, basic direction should be kept as below. First program of event should focus on unique differentiation of eco-environment. Second artists and experts specialized for eco-environment should be taken part in. Third healthy of hybrid between eco and culture-art with collaboration of organizations. Fourth eco-friendly visitors activities guideline should be made and be noticed to visitors.

Keyword

Eco Festival(생태축제), Eco Park(생태공원), Culture Art Event(문화예술행사), Collaborative Governance(협력 거버넌스)

요약

생태축제는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유희적 활동을 통해 생태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지역 축제가 증가하면서 지역의 생태자산을 활용한 생태축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생태축제의 프로그램은 획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생태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생태축제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질 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안산갈대습지에서의 문화예술축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안산갈대습지와 유사한 생태공원을 대상으로 친환경 문화예술행사 사례를 분석하였다. 생태공원은 법정공원 상 분류가 아닌 이유로 인해, 생태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의 지자체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어 생태공원의 문화예술행사는 지역 축제의 성격을 가진 곳이 많았다. 문화예술행사의 주요 콘텐츠는 방문자 층의 특성, 생태공간의 공간적 특성, 그리고 주관기관의 행사에 대한 주제 의식에 따라 결정되었다. 안산갈대습지의 가을 축제는 생태환경 훼손을 최소화한 공간 활용과 청각이라는 새로운 감각에 초점을 맞추고 문화예술기관의 협업과 지역 예술가를 참여시켰다. 생태성의 존중과 문화예술의 향유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음의 기본 방향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생태환경의 고유한 차별성을 존중하는 문화예술행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행사의 환경에 특화된 예술가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문화예술전문기관의 거버넌스 아래의 협업으로 생태와 문화예술간 이중혼합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행사 운영에 있어 친환경적 세부 지침을 만들고 방문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 방법과 범위

2. 생태축제의 이해

- 2-1. 생태축제의 개념과 특성
- 2-2. 생태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3. 생태공원의 생태축제

- 3-1. 생태공원의 공간 활용 특성
- 3-2. 생태공원의 문화예술행사 사례
- 3-3. 생태공원의 생태축제 프로그램 분석 소결

4. 안산갈대습지 가을문화축제 소리전

- 4-1. 안산갈대습지 개요 및 현황

- 4-2. 안산갈대습지의 주요프로그램
- 4-3. 가을문화축제 소리전의 기본 방향
- 4-4. 가을문화축제 소리전의 주요 프로그램
- 4-5. 가을문화축제 소리전의 기획과 운영

5. 결론

- 5-1. 생태공원의 문화예술행사의 기본 방향
- 5-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방향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 축제는 지역 문화와 자원 발굴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고양하고, 주민 자긍심과 소속감 고취, 관광객 유치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보편화, 다양화 경향을 보인다. 지역 축제의 한 유형으로 생태축제는 지역의 생태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 보존과 교육에 더 붙여 유희적 요소를 더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개발’에 매우 적합한 형태라 보아도 무방하다.

안산시의 경우 반월시화 산업단지 입주 업체들이 밀집되어 있어, 폐공업용수 무단방류, 오수관 오점, 정화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공단 인근의 주민들이 악취와 두통 등 고통을 호소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시화호로 흘러드는 반월천, 삼화천, 동막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갈대 등 생태환경을 통해 자연적 정화 기능을 갖도록 국내 최초의 인공습지인 안산갈대습지가 조성되었다. 지속적인 투자와 생태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안산갈대습지는 수변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며 수려한 자연 풍광을 가지게 되면서, 연간 24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생태 명소이자 환경교육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풍부한 생태자원을 가진 습지로 보호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안산갈대습지를 생태, 환경교육의 장소를 넘어 시민의 치유와 휴식 공간으로 사랑받으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제

공화자는 의견이 등장하였다. 해외의 경우 문화예술의 향유가 숲, 벌판, 강 등 풍성한 자연을 배경으로 전시, 공연, 축제 등의 행사가 증가되는 추세이며 자연보존을 중시하는 생태공원에도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안산갈대습지와 같이 절대 보존을 중시하는 생태환경에서의 문화예술 행사에는 진행과 행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생태적,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자연이 살아있는 지역의 생태공원은 시민들에게 생태 보존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연 속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장소를 제공하였으며, 차별화된 생태공원은 지역의 관광명소로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 생태공원은 풍성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생태축제의 주요 장소로 사용된다. 하지만 생태환경에서 생태축제는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생태적으로 부정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생태공원으로서 환경 보존도 중요하겠지만 생태와 조화되는 생태축제는 생태공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하며, 지역의 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갈대습지라는 자연생태환경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탐방객들에게서 문화와 예술을 체험, 향유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검토되었으며, 구체적 실행 안으로 생태축제의 형식으로 2018년 안산갈대습지 소리전이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 행사의 추진과 진행에 있어 고려했던 제반의 기획요소 및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생태환경을 활용한 문화예술행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생태축제의 대

표 프로그램으로서 문화예술행사의 공간 활용, 콘텐츠 구성, 운영방안 등의 분석을 통해 생태공원에서 자연환경 보존과 문화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위한 문헌 연구, 사례 분석 그리고 2018년 안산갈대습지 소리전의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론적 고찰은 생태축제의 정의와 특성, 생태공원의 가치와 안산갈대습지 이해를 위한 기초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례분석은 생태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포함한 국내 지자체 축제를 대상으로 하였다. 생태공원은 법정용어가 아니어서 지자체가 생태자연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임의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생태공원에는 생태와 관련성이 낮은 지역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습지, 갯벌과 같이 유사한 생태환경을 가지거나 친환경적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안산갈대습지의 가을문화축제는 행사의 공간 활용, 주요 행사 콘텐츠 구성, 공공기관간 거버넌스 협력 관점의 운영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생태공원에서 친환경적인 문화예술행사의 방향을 제시한다.

2. 생태축제의 이해

2-1. 생태축제의 개념과 특성

축제란 ‘공적이며 테마가 있는 의식’으로서 특정의 목적을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수행하는 일단의 상호작용이다(Getz, 1991). 권자경(2001)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축제는 지역 활성화 효과, 지역 이미지 향상 효과, 주민화합 효과, 주민교육 효과, 지역 문화 육성 효과, 지역의 장애요인 극복 효과,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의 효과를 갖는다고 정리하였다. 지역 축제는 지향하는 테마에 따라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데, 생태축제는 지역의 자연과 생태계를 보존하며,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발굴·전파하며,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자연생태계에 대한 경외심 및 존중심을 함양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진다.¹⁾

1) 이경진·송명규, 우리나라 환경축제의 현황과 과제: 생태축제의 위상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연구논문, 2012, p.54.

문화체육관광부(2008)는 지역축제를 개최 목적, 즉 축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주민화합형축제, 산업진흥형축제, 전통계승형축제, 환경보전형축제, 관광진흥형축제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환경보전형축제는 지역의 자연 혹은 생태환경 보전과 그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의 축제를 지칭하며, 대체로 방문자들의 체험활동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²⁾

생태축제는 생태·자연축제의 하위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여러 정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여영숙(2009)이 제시한 ‘생태축제는 생태자연을 소재로 생태보존과 생태교육의 자연친화적 목적을 도모함과 함께 유희적 성격을 포함하는 축제’라는 정의를 따른다.

2-2. 생태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생태의 중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생태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 선 독일은 오래전부터 환경축제와 환경영화를 생태문화운동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의 환경운동은 단순히 환경 보전이나 훼손된 환경의 회복이라는 차원을 넘어 환경 파괴를 가져온 근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기본적 가치들을 문제삼고 의식의 전환, 이른바 ‘생태적 가치’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적 기반 위에서 사회를 총체적으로 재구축하는 운동이다. 이러한 의식 전환을 위한 대중 교육에 가장 좋은 방법이 영화제와 축제이다.³⁾

생태축제는 다른 지역축제와 달리 교육적 효과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성선경(2009)은 생태축제의 교육적 효과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첫째, 축제에서의 체험 활동을 통해 방문자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 둘째,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자들의 높은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방문자들은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자연환경에 대해 친화감과 친환경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⁴⁾ 이처럼 생태축제는 지역 생태를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생태적 인식도 높여준다.

한국관광공사의 분석(2011년)에 따르면 환경보전형 축제는 1~3일간 진행되는 단기축제가 다수를 점하고

2) Ibid., p.61.

3) 사순옥, 생태문화운동의 콘텐츠로서의 환경축제, 카프카연구, 2008, p.295.

4) 송명규, 생태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사례로, 환경영향평가, 2012, p.55.

있으며, 지자체의 환경축제는 환경보전 및 교육 보다는 관광객 유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환경축제가 단기간에 걸쳐 소규모로 운영되는 영세한 지방축제로 여타 축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축제(138개) 중에 생태축제(14개)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지자체의 생태축제는 야생화, 갈대, 철쭉, 숲 등 자연소재를 주제로 삼고 있다. 생태축제들이 사회적, 교육적 효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생태축제가 방문객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생태축제로서의 차별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경진과 송명규(2012)는 생태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전시성, 오락성, 연례성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환경축제에 걸맞는 교육성, 체험성, 참여성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⁵⁾ 생태축제가 본래 목적에 충실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생태공간에서의 특화된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독일의 생태사회 조성 방안과 같이 연극, 영화제, 예술가 참여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생태공간에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고유한 생태 환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생태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및 상생이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3. 생태공원의 생태축제

3-1. 생태공원의 공간활용 특성

안산갈대습지와 같은 자연생태공원은 자연생태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문화공간뿐만 아니라 방문자를 위한 편의시설 마련도 제한적이다. 건축물의 건립은 물론 고정식 편의시설의 설치도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탐방객에게 생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편의를 위한 공간과 시설 설치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영역과 조건에 한정하여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생태공간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탐방객의 다양한 문화적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제한된 영역에 문화적 요소의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특히 생태공원에서의 문화적 요소는 단순히 공간과 시설을 넘어 교육, 체험, 탐방 등 탐방객의 경험 요소와 콘텐츠에서 통합적으로 나타난다.

생태공원과 같이 자연환경의 보존이 중시되는 장소

에서의 축제 등의 활동은 생태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원이 가능한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정 공간을 장기적으로 점유하는 상시적 문화활동 보다는 한정된 시기와 기간 동안에 하나의 이벤트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화활동의 참여 인원과 허용되는 행위 범위도 제한적이다.

3-2. 생태공원의 문화예술 행사 사례

3-2-1. 시흥 갯골축제

시흥 갯골은 경기도에서 유일한 내만(內灣) 갯골이며 물새 및 법적 보호종 생물의 중요한 서식지로 인정받아 201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의 장을 마련하여 자연에서 즐겁게 어울릴 수 있음을 알리고자 2006년부터 매년 9월 시흥 갯골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⁶⁾ 신나고 유익한 생태 예술 놀이터라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시흥갯골축제의 행사내용은 ‘대표프로그램, 생태체험놀이, 생태예술공연, 야간프로그램, 특별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갯골드레스룸은 갯골에 서식하는 동물 모양으로 분장하는 프로그램이고, 갯골 패밀리런은 가족과 함께하는 오리엔티어링 미션 놀이이며, 갯골 퍼레이드는 갯골에 서식하는 동식물로 분장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진이다. 생태예술공연으로 ‘어쿠스틱 음악제, 갯골뷰 재즈살롱, 소금창고 인형극장, 나무숲 클래식공연장, 바람데크 국악당, 수영장 예술극장’등이 열린다. 갯골달빛야행은 호롱불을 들고 갯골생태공원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고, 갯골달빛난장은 갯골생태공원에서 야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공연들이다.⁷⁾

시흥 갯골은 습지이나 내만 갯골로 넓은 잔디와 열린 공간이 많으며, 이미 많은 인공시설물들이 자리잡고 있어 생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도 대규모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그림 1] 시흥 갯골축제는 시흥을 대표하는 축제로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연령을 위해 놀이, 공연, 체험, 대회 등 문화예술을 넘어 시민 화합의 장으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시흥 갯골은 과거 염전으로 사용되던 장소로 천일염에 관련된 체험 행사와 야간 생태 투어 등이 차별화된 축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6) 향토문화전자대전 시흥 갯골 축제. (2022년 4월).
URL: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7754&cid=63856&categoryId=63938>

7) 지역N문화. (2022월 4월).
URL: <https://ncms.nculture.org/local-festival/story/233>

5) 이경진·송명규, op. cit., p.79.



[그림 1] 사흥 갯골축제 전경

3-2-2. 춘천 중도 생태공원 '다시, 숲' 축제

춘천시 의암호의 중도에서 하중도 남측에 수변생태공원이 위치하여 있다. 이곳은 과거 중도유원지로 1980년대 MBC 강변가요제가 열리던 장소였지만, 이후 사람들이 찾지 않아 원시림과 새들의 낙원이 되었으며 2020년 춘천시가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춘천문화재단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 11월 중 3일간 섬, 생태, 숲을 키워드로 공연 예술, 체험, 놀이, 산책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다시, 숲' 축제를 개최하였다.[그림 2] 피아노의 숲, 콘트라베이스의 숲, 바이올린의 숲, 무용가의 길, 부토와 야생의 숲 등 중도 곳곳을 이동하며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연과 예술섬 마켓, 영화 상영 등이 진행되었다. 축제 기간 공원 입구 허공에 떠 있는 물방울 모양의 상징물인 오태원 작가의 '제로그래비티 빅드롭스'는 생명과 예술을 상징한다. 폐막식 때 이 물방울을 지상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통해 '자연이 사람에게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평소 전기 시설이 없어 밤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중도에 불빛과 조명을 설치해 '야간 산책' 낭만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중도 건너편 물그림자로 비치는 춘천시내의 야경과 원시림 속을 거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사후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마실 물은 텀블러 등에 담아 사전에 가져오길 권장하고 있으며, 종이 안내 책자 등도 별도로 제작하지 않았다.⁸⁾



[그림 2] 중도 '다시, 숲' 행사 포스터

중도의 '다시, 숲' 축제는 3일간 사전예약된 방문객만 입장을 허용하고, 자전거나 카누와 같이 무동력 이동수단을 이용한 방문객에게는 특별한 기념품을 증정하였으며 폐기물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환경친화적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도가 가지고 있는 지리, 생태적 특성을 축제 키워드로 하였으며 전기시설이 부족한 장소라는 점을 활용하여 야간 프로그램을 특화시켰다. 특히 폐막식과 함께 상징물을 철거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환경과 인간 사이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사의 성격을 보여준 것이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축제가 개최된 생태공원과 인접하여 2022년 개장할 레고랜드가 있어 향후 많은 사람이 하중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수변생태공원의 보존과 축제의 지속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3. 강진만 생태공원 갈대축제

강진만생태공원은 탐진강과 강진 바다가 만나는 곳으로 20만 평 규모의 갈대 군락지와 청정 갯벌을 자랑하며 천연기념물 큰고니 등 철새 집단 서식지이기도 하다. 또한 1,131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남해안 최대 생태다양성 보존 지역이다.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라는 이름의 축제는 공연, 체험, 레이저쇼, 경연대회, 추억의 장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생태공원의 규모가 크고 바다까지 이어지는 갈대밭이 있어 생태 체험보다는 갈대와 습지를 배경으로 하는 지역 축제의 성격이 강하다.[그림 3] 문화와 힐링을 표방하고 있지만 축제프로그램에서 인기가수 초청 공연, 향토음식 시음회, 추억의 오락실, 가상현실 VR 힐링, 청춘사진관 등 생태와 관계없는 콘텐츠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중 많은 수가 중장년층 방문객을 지향하고 있다.

8) 한겨레신문[웹사이트]. (2021년 11월 1일).
URL: <https://www.hani.co.kr/arti/area/gangwon/1017462.html>



[그림 3] 강진만 생태공원 갈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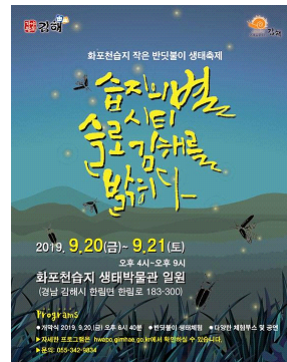
축제의 성격과 내용을 보면 갈대축제는 생태공원의 자연환경 가치를 알리기보다는 지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실제 축제 기간을 전후로 하여 방문객이 급증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고 있다. 갈대축제는 전국 축제 중에 가장 마지막에 개최되는 대형 지역 축제로 강진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축제 중에 임시 공연장 외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가 없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2-4. 김해 화포천 작은 반딧불이 생태축제

김해에 위치한 화포천습지는 낙동강과 만나는 곳에 형성된 국내 최대의 하천형 습지로, 종류에는 '화포천 습지생태공원'이 구성되어 있다. 과거 하류에 매립장이 들어설 정도로 오염되었던 화포천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생태환경복원에 나서면서 현재는 멸종위기 생물 13종이 서식하고, 멸종위기 종인 황새가 도래하는 등 생태 우수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서 화포천 습지생태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습지 지역의 다양한 생태 체험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포천 습지는 환경 지표종인 반딧불이를 비롯한 다양한 곤충과 식물, 멸종위기종인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황새, 독수리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화포천과 인접한 봉하마을은 친환경 생태농업으로 화포천을 찾는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 9)

기존에 화포천을 활용한 축제가 없었으나 김해시는 2019년 국제슬로시티 선데이 행사와 연계해 화포천의 생태를 인식하고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반딧불

이 생태축제를 개최하였다. 생태축제에서는 어두운 화포천 길을 걸으며 반딧불이를 관찰하는 2가지 체험코스를 운영했다. 마을 주민들이 친환경농업으로 가꾼 식재료를 이용한 생태식당과 화포천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 만들기, 습지 야생화 그리기, 반딧불이 티셔츠 만들기, 병뚜껑을 활용한 친환경 조명등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10) 행사의 생태성을 중시하여 식당 이용자는 개인 수저세트와 텀블러를 지참하도록 하였다.



[그림 4] 제1회 반딧불이 생태축제 행사 포스터

화포천 생태축제는 습지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관찰과 체험이 행사의 핵심이 되고 있어 생태적 속성이 두드러진다. 반면에 문화, 예술 행사는 다른 축제와 차별성이 보이지 않으며, 생태농업으로 생산된 재료로 만든 식당이 지역적 특성을 보인다. 생태공원의 장기적 전략보다는 국제슬로시티와 연계된 축제로 주요 프로그램의 차별화 및 내실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3. 생태공원의 생태축제 프로그램 분석 소결

생태공원은 법정공원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 지자체가 생태 환경 요소를 가진 공원에 임의로 '생태' 명칭을 부여할 수 있어, 전국에 명목상 생태공원이 많이 존재한다. 생태공원은 풍성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생태 환경에서의 휴식과 여가를 중시하면서 생태공원의 조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생태 환경의 장점을 살리면서 지역

9) 김해인터넷뉴스[웹사이트], 2019년 9월 11일,
URL: <http://www.ginews.co.kr/news/view.php?no=7881>

10) 일요서울[웹사이트], 2019년 9월 12일,
URL: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583>

주민의 즐거움을 위해 생태공원에서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생태공원 명칭이 임의로 부여되고 있어 생태공원에서의 문화예술행사 내용과 생태와의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일부 행사는 친환경, 친자연과는 거리가 먼 지역축제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곳의 사례 중 환경부에서 생태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시흥 갯골과 강진만 갈대숲이지만 행사 내용 측면에서 생태 환경의 밀접성은 생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춘천 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문화행사의 생태 환경적 요소는 행사 주관기관의 주제意識과 문화예술 행사의 콘텐츠에 의해 좌우된다.

생태공원에서의 축제의 규모와 내용은 공원의 공간과 생태 환경의 특성에 의존한다. 시흥의 갯골축제, 강진만의 갈대 축제는 대규모 영역으로 생태적 환경과 이격된 오픈 스페이스와 구조물에서 주로 대규모 문화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협소한 생태공간을 가진 춘천의 중도는 설치 미술과 작은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해 화포천생태축제는 습지에 서식하는 반딧불이 탐방에 초점을 맞추었고 문화예술 행사의 생태적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는 생태공원이라 하여도 행사의 개최 목적과 취지에 따라 문화예술행사의 성격과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강진만 갈대축제는 생태보다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고 춘천중도는 생태환경 속에서의 예술 체험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김해 화포천은 지역 축제의 문화예술프로그램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표 2] 생태공원의 문화예술행사 차이 비교

속성	시흥 갯골 축제	춘천 중도	강진만 갈대축제	김해 화포천 생태축제
국가지정 생태지역	○	×	○	×
행사규모	대규모	소규모	대규모	소규모
생태관련성	높음	높음	낮음	높음
행사 친환경성	보통	높음	낮음	높음
생태환경 활용	체험 요소	생태속 미술, 음악	행사 배경	탐방대상
행사주요 방문자	가족, 어린이	젊은 세대	중장년층	가족
주요 행사 특성	체험, 놀이	미술, 공연	공연	탐방

주목할 것은 문화예술행사의 주요 방문객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시흥 갯골 축제는 아이가 있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어린이들에게 갯골의 다양한 생태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강진만 갈대축제의 경우 중장년 연령의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었다. 생태환경에 대해 체험보다는 수려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추억만들기를 위한 콘텐츠가 다수를 차지한다. 춘천 중도는 젊은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환경 활동과의 연계를 중시하였다.

4. 안산갈대습지 가을문화축제 소리전

4-1. 안산갈대습지 개요 및 현황

안산은 대한민국의 최초 계획도시로 반월국가산업단지과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수도권 최대의 제조업 지역이다. 계획도시로서 공업단지와 주거지를 분리하였지만, 제조업 성장기에 공단배후도시로 대기오염, 악취, 수질 오염으로 주민들은 생활에 고통을 겪었다. 특히 1987년부터 제방공사와 함께 담수호로 조성된 시화호로 방류된 공업폐수가 모이면서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오염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이에 담수호를 포기하고 배수갑문을 통한 해수유통을 시작하였다. 수질개선 대책으로 하수처리장 증설과 시화호 상류에 인공습지인 안산갈대습지를 조성하였다.

안산갈대습지는 시화호 상류 유역의 반월천, 동화천, 삼화천 합류부 공유수면에 비점오염 자연정화처리(수질 정화)의 목적으로 조성된 국내최초의 대규모 인공 습지이다. 생태환경 보호와 방문객에게 양질의 생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중이다. 습지 가운데에는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인공섬이 있고, 그 주위는 수중식물과 야생동물의 활동 공간이 분포한다. 생태연못과 산책로 주변에는 붓꽃, 노란꽃창포, 수련 등의 야생초화류와 각종 수목이 있으며,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1.7km의 탐방로가 마련되어있다. 오리, 해오라기, 장다리물떼새, 황오리, 중대백로 등의 철새를 관찰 할 수 있는 생태 학습장이자 사계절 변화 연구가 가능한 안산시 대표 생태명소로 발전했다.¹¹⁾

11) 위키백과[웹사이트], 2022년 6월 24일

URL: <https://ko.wikipedia.org/wiki/안산갈대습지공원>

안산갈대습지는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로 생물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개방지역과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미개방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방지역의 경우도 생물의 생태를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일반 도시공원보다 짧게 했다.

4-2. 안산갈대습지의 주요 프로그램

습지는 단순히 물을 가두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이며, 오염되고 유해한 물질을 걸러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등 중요한 환경적 기능도 수행한다. 반면 습지는 생태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강, 호수, 바다 등 다른 수공간에 비해 개발이 용이하여 많은 습지가 육지화 되면서 사라졌다. 전 세계적으로 습지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안산갈대습지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와 가치를 가진다.

안산갈대습지는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가장 중시하지만, 동시에 시민들에게 자연 생태를 보고 배울 수 있는 탐방과 교육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안산갈대습지는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생태를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문화적 요소를 적용한 만들기 등의 정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표 1]¹²⁾

[표 1] 안산갈대습지의 정례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안산갈대습지 생태탐방	안산갈대습지 역사와 의미를 알아보고 탐방로를 따라 다양한 생태자원 탐방
조류 탐방 프로그램	탐조 체험 및 교육, 야생조류 보호 방안, 인공새집 제작설치 등의 체험
자연에너지 체험활동	자연에너지의 생성원리를 배우고 체험시설을 직접 체험하기
수생생물 생태교육	습지 서식 수생생물을 채집 및 관찰하며 먹이사슬과 수생태계를 알아보기
안산갈대습지 9경 생태교육	갈대습지의 거점별 생태 특성을 9가지로 특성화 시킨 생태 배우기
안산갈대습지 가족생태프로그램	가족 단위로 생태전문가와 함께 안산갈대습지 생태 체험
안산갈대습지 자연물을 이용한 추억한마당	안산갈대습지의 자연물을 이용한 공예 및 생활용품 만들기

12) 안산갈대습지[웹사이트]. (2022년 4월 30일).
URL: <https://wetland.ansan.go.kr/index.php>.

이들 프로그램은 생태 체험과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예 만들기를 제외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분류 가능한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생태보존을 중시하여 정례적 생태축제는 개최하지 않는다.

4-3. 가을문화축제 소리전의 기본 방향

안산갈대습지를 관리하는 안산환경재단은 2018년 최초로 안산갈대습지 내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담은 생태축제를 기획하였다. 생태보호가 필요한 공간이자 지역 주민의 명소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자연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동시에 향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생태 환경의 보존으로 동식물 서식 환경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배제하고 가능한 자연생태 환경에 간섭을 주지 않는 구역으로 축제 행사 공간을 제한하였다. 둘째, 콘텐츠 측면으로 자연 환경을 다른 각도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감각’에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문화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행사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넷째, 주요 행사에 지역예술가를 참여시켜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생태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는 안산갈대습지 전체가 아닌 탐방객이 이동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보조 공간, 또는 유희공간으로 제한하였다. 안산갈대습지는 동식물 서식공간인 생태공간과 탐방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 공간으로서 생태관, 피크닉존, 잔디마당 등이 있다. 연극 공연은 춤과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잔디밭에서 진행되었다. 그러나 무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관객이 집중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는 무대 뒤쪽 조성림 사이에 천연 천을 매달고 무대 옆쪽으로 가변형 설치작품을 배치함으로써 보완하였다. 미술작품의 설치의 수목 등에 가설구조물을 이용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해체, 철거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4-4. 가을문화축제 소리전의 주요 프로그램

안산갈대습지 가을문화축제는 친환경적이면서도 문화적 감수성을 포함한 공공예술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평소 방문객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생태공원의 ‘소리’를 주제로 삼았다. 안산갈대습지의 생태와 자연이 만드는 소리를 통해 도시와는 다른 청각의 경험을 제공하고, 자연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행사의 주요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생태

속의 ‘소리’를 주제로 하여, 사진, 연극, 체험, 조형물 등이 자연의 소리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여 방문자를 안산갈대습지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하였다.

[표 3] 소리전 2018' 프로그램 내용

분류	컨셉트	주요 내용
전시 (사진전)	자연의 소리를 포착하다	·습지기록사진가 작품 전시 ·도슨트(학예사) 운영 ·사진 엽서 판매(수익금 기부)
연극 (음악극)	동물의 소리를 몸짓하다	·클래식 연주가 어우러지는 연극 (퍼포먼스) ·오리엔티어링 개념을 도입한 관객 참여형 공연
체험 (공예)	흙과 나무의 소리를 만들다! 빛다!	·자연 소재의 재료 사용 ·다양한 만들기 체험 부스 운영
키네틱 아트 (조형물)	물의 소리를 연주하다	·키네틱아트를 주제로 한 경기창작센터 작가 조형물(설치 ·물)을 재료로 한 실험 작품

‘소리전 2018’은 공간적 범위로서 안산갈대습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내용적으로는 공공예술의 가치를,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공공기관간 거버넌스 형식을 취하였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전시, 연극, 공예 체험, 키네틱 아트로 구성하였다.[표 3] 사진전은 안산갈대습지의 피크닉 존의 수목 사이에 사각 철재 기둥을 임시 설치하여 기상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옥외 전시장에서 개최하였다. ‘습지의 지저귀’, ‘꽃들의 지저귀’, ‘새들의 지저귀’, ‘친구들의 지저귀’ 이라는 4개의 소주제로 갈대습지의 사진을 보고 기존에 알지 못했던 세부적인 습지의 모습들을 한눈에 이해하도록 자연스런 전시 동선을 구성하였다.

연극은 방문자들에게 ‘생태의 중요성을 이야기’ 형식을 빌어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소리전에서 연극과 클래식 음악을 접목한 음악극으로 진행하였다. 안산갈대습지에 서식하는 노랑부리백로, 고라니, 금개구리 등을 모티브로 한 창작극으로 관객이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각색하였다. 환경생태관 앞마당에서는 탐방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인 생활예술 분야 체험 부스 운영을 기획하였으며, 또한 갈대습지 생태연못 물을 활용한 작가의 예술 전시품을 생태연못 및 환경생태관 앞마당 위치에 설치를 구상하였다. [표 4]

[표 4] 소리전 20018 기록사진

구분	관련사진	공간
연극		잔디 마당
전시		피크닉 존
체험		환경 생태관 앞
키네틱 아트		생태 연못, 환경생 태관 앞
습지 사진관		잔디 마당
전시 안내		잔디 마당 (정자 시설)

부대행사로는 습지기록사진사들이 진행한 인생 샷 찍어주기, 큐레이터와의 야외전시 관람, 미술, 스탬프를 활용한 습지 포인트 찾기 등이 진행되었다. 또 안산환경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습지해설가들도 습지탐방과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였다.

4-5. 가을문화축제 소리전의 기획과 운영

안산갈대습지를 관리하는 안산환경재단은 문화예술 행사 담당 전문 인력과 조직이 없어, 가을축제를 위해 안산시 문화예술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행사의 기획과 운영을 함께 하였다. 문화예술의 협력 기관은 안산문화재단으로, 협력기관을 통해 행사의 문화예술의 기획과 지역의 예술인들과 협업이 이루어졌다. 가을축제에는 행사와 운영에 지역 전문가와 예술가들을 참여시켜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안산환경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습지기록사진사, 습지해설사, 자원봉사자들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체험행사 등에 참여하였다. 안산갈대습지의 공간적 연구와 그에 따른 예술 장르의 선정이 중요했으며, 콘텐츠 기획시 안산문화재단

의 '청년예술인 네트워크'의 예술가를 일부 참여시켰다. 지역 예술가들의 참여는 예술인들에게 시민생태문화운동을 이끌어가는 생태공동체와 생태사회 조성을 위한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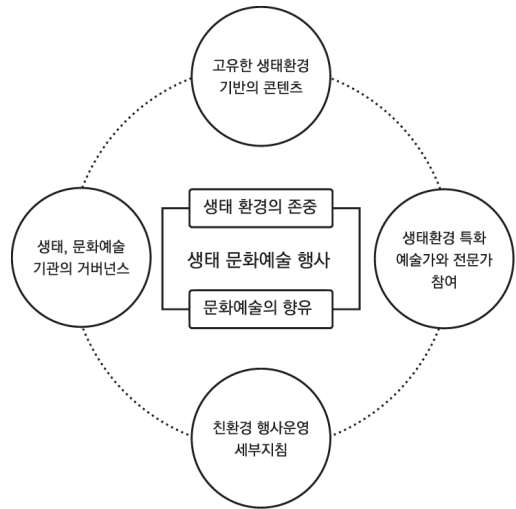
안산환경재단과 안산문화재단의 협업의 특징은 지방정부 산하기관간 공공기관 거버넌스라는 점과 자연생태공간과 문화예술 콘텐츠의 결합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행사 참여 측면에서 공공기관간 거버넌스라는 상층 구조에 내적으로는 민·관 거버넌스 형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두 공공기관이 수평적 구조의 사업추진을 진행하는 동시에 두 기관이 유지하고 있는 대민 거버넌스가 참여하는 복층구조라 할 수 있다. [그림 5]



[그림 5] 소리전 2018 거버넌스의 복층구조

안산갈대습지는 방문자를 배려하여 장애인과 다문화 시민을 배려한 버스를 운영하였으며, 방문자에게 텀블러 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1회 용품 배출을 최소화하였다. 행사 폐막식과 함께 안산시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시설 철거를 진행하였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들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콘텐츠로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축제 등 생태환경과 부합되지 않는 문화행사로 인해 생태환경의 훼손과 함께 생태공원의 장소적 차별성도 상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생태환경 속에서 문화예술행사들이 생태성의 존중과 문화예술의 향유라는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행사 기획과 운영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이 견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6]



[그림 6] 생태공원의 문화예술행사를 위한 기본 방향

5. 결론

5-1. 생태공원의 문화예술행사의 기본 방향

첫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생태환경의 고유한 차별성을 존중하는 문화예술행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수려한 생태환경만을 장소적 배경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환경이 가지고 있는 동식물, 지질 요소 등의 체험, 교육과 주제를 공유하는 문화예술 활동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예술행사의 환경에 특화된 예술가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실적 문제와 시대성은 예술 창작자들의 아이디어와 창조의 원천으로 환경문제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고 이는 예술 영역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생태환경의 주제와 조화되는 작품과 공연이 가능한 예술가와 전문가를 초빙하여야 하며, 생태환경의 특성과 차별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환경 예술가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예술전문기관의 거버넌스 아래의 협업으로 생태와 문화예술간 이종혼합의 건강성을 유지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행사는 정례화 되면서 활력이 저하될 수 있어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행사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환경문제를 기반으로 한 개별적 예술행위는 있었으나 환경과 문화예술이 연계되는 기관간 협업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확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행사 운영에 있어 친환경적 세부 지침을 알리

고 방문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차량 이용, 1회 용품 및 인쇄물 줄이기 등 행사로 인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사전에 이를 방문자들에게 고지하여 친환경적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춘천 중도의 사례처럼 행사의 마지막을 방문자와 함께 시설물 해체, 철거로 하여 친환경 메시지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2. 연구의 한계의 후속연구의 방향

생태보존지역 등의 지정 없이 생태공원으로 명명된 곳이 많아 실질적인 친환경 문화예술행사가 많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많은 문화예술행사가 취소되어 사례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본 연구의 주된 한계이다. 생태공원의 문화예술행사의 종류가 많다 보니 프로그램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는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생태공원에서의 문화예술행사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생태공원의 지정에서부터 발생한 문제로, 법정공원으로서 생태공원의 명확한 기준에 따른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마크 터섹조너선 애덤스, 나는 자연에 투자한다, 사이언스북스, 2015
2. 안산갈대습지 시민구상안, 안산환경재단, 2016
3. 박소연, 문학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마케팅-지역문화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문화논총 제18집, 2008

4. 백선히라도삼, 예술을 통한 지역만들기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5. 사순옥, 생태문화운동의 콘텐츠로서의 환경 축제, 카프카연구, 2008
6. 송명규, 생태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사례를, 환경영향평가, 2012
7. 이경진·송명규, 우리나라 환경축제의 현황과 과제: 생태축제의 위상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환경정책 2012
8. 권자경, 지역축제의 유형별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9. 안산환경재단 정책브리프,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간 거버넌스의 역할과 가능성 연구, 2018.
10. wetland.ansan.go.kr
11. terms.naver.com
12. www.nculture.org
13. www.hani.co.kr
14. www.ghinews.co.kr
15. www.ilyoseoul.co.kr
16. ko.wikipedia.org/wiki
17. www.gangjin.go.kr/gangjinbay
18. www.ilyoseoul.co.kr